도의원 VS 前 축협장 '무주공산' 선점 3파전

김성호·나병기씨 '풍부한 인맥·의정경험' 강점

안병호씨 '지역민심 끌어안기' 4년간 절치부심

■함평군수 입지자

함평은 이석형 군수가 일찍 군수직을 사퇴하고 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무주공산'이 됐다. 하지만, 입지자는 많지 않다. 김성호·나병기 전남도의원과 안병호 전 함평 축협 조합장 등 민주당 소속 3명이 뛰고 있을 뿐이다.

분위기도 차분하다. 현직 프리미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동등한 조건에서 후회 없는 한판을 벌이자며 출마회견을 공동으로 하는 등 페어플레이 가능성이 엿보인다.

김성호·나병기 도의원은 지난 22일 함평 엑스포 주제영상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군수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들은 군수 경쟁자이지만, 사리사욕을 버리고 깨끗한 선거운동으로 군민의 지지가 많은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합의해 경선 막판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해 앞으로 이들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교사위원장인 김 도의원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력을 내세우고 주민 속으로 파고 들고 있다. 도의원 재선을 통해 다져진 든든한 지지기반과 지방정치 경험이 강점이다.

김 도의원은 "함평의 새로운 역사 창조를 위해 농어민의 고소득 육성과 나비축제 발전에 더욱 매진하는 한편 혁신적 리더십을 통한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나 도의원도 군의회 의장, 도의원 등 8년간의 의정 경험을 내세우며 주민 접촉을 늘려가고 있다. 폭넓은 인맥과 추진력이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나 도의원은 "전국에 널리 알려진 나비 브랜드를 이용해 함평의 친환경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켜 함평 농수축산물을 국내 최고의 명품 브랜드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선거 때 민주당 후보로 나섰지만 이석형 전 군수의 아성을 넘지 못한 안병호 전 함평 축협 조합장도 지난 23일 출판기념회를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안 전 조합장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이었던 이 전 군수와 대결을 벌여 5천 여 표 차이로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다. 하지만, 당시 안 전 조합장은 20%의 표도 얻지 못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40% 가까운 득표로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안 전 조합장은 패배 이후에도 함평군 전역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지역민심 끌어안기에 주력하며 4년을 절치부심해왔다. 12년간의 조합장을 맡아 170억 규모의 조합 살림을 1천억원 규모로 끌어올린 성과를 내세우고 있다. 조합장 시절 갖춘 조직력도 강점이다.

그는 "나비의 고장이라는 브랜드에 걸맞게 함평의 부가가치를 높여 소득증대로 이끌어야 한다"면서 "관광수익 개발과 농외소득 증대에 힘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황운학기자 hwang@

■함평군수 입지자 〈가나다 순〉

김성호(55)	나병기(55)	안병호(63)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전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전남도의회 의원	전 축협조합장

①김성호·나병기씨 단일화

②이낙연-이석형 입김은?

〈민주 지역위원장〉 〈전 함평군수〉

■쟁점&변수

함평군수 선거는 민주당 공천 경쟁이 사실상 본선이나 다름없다.

3명의 민주당 후보만이 출사표를 던졌을 뿐 아직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군수 후보 경선은 현재 '현역 도의원 대 전 축협 조합장' 대결로 압축되는 양상이다. 김성호·나병기 전남도의원 2명은 경선에는 각각 임하되 막판 지역민심에 따른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경선 후반 최종적으로 한 사람을 밀어주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단일화 명분으로 '정책 단일화'와 깨끗한 선거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지역정가에서는 민주당 후보의 난립으로 인해 경선이 조기에 과열될 것을 우려한 민주당 지역위원장인 이낙연 국회의원이 '사전 교통정리' 차원에서 후보군을 두 명으로 압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한,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 조합장이 두 의원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어 두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두 후보의 단일화가 향후 민주당 함평군수 경선 구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지역위원장인 이낙연 국회의원과 군수 3선을 지낸 이석형 전 군수의 입김이 어떤 후보에게 쏠리느냐도 후보 경선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두 사람 모두 향후 원활한 정치행보를 위해서 '집안 단속'은 확실히 하고 나설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황운학기자 hwang@

현역 도의원들 '군수 도약' 꿈 꿔

선거구 1개로 줄어 후보 5명 혈전

■도의원 입지자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라 함평군 도의원 선거구가 2개에서 1개로 줄었다.

여기에 현역 도의원 2명이 모두 군수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1석의 도의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후보 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특히 군수 출마를 선언한 현역 도의원 중 한 사람이라도 도의원 출마로 U턴 할 경우 함평 도의원 선거는 혈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출마의 뜻을 확고히 한 후보는 노종석 전 천지농협조합장, 박동주 민주당 전남도당 부대변인과 이윤행 함평군의원, 전일정 천지양계영농조합 대표, 정문호 동신대 관광경영학과 겸임교수 등 5명이다. 이들 모두 민주당 후보인데다 한나라당 등 이렇다할 무소속 후보들도 아직까지 나서지 않고 있어 사실상 민주당 '공천 경쟁'이 본선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초대 천지농협조합장을 지낸 노종석씨는 수년간의 영농 경험과 농협조합장을 지낸 농정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출사표를 던졌다. 노 전 조합장은 선진 농업·농촌에 대한 견학 및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함평군 권역별 농정방향 제시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그는 "민선 4기를 거쳐오면서 지역 브랜드 가치는 높아졌지만, 농어민들의 소득에는 기대를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면서 "창조적·혁신적 리더십이 아닌 경제마인드를 갖춘 농업 전문가도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동주 부대변인은 16·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중앙당에서 특별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전남도당 공보실장을 하는 등 폭 넓은 당내 활동을 해 온 경험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그는 "나비축제를 통해 잘사는 함평을 만들어 보자고 노력했지만, 요란한 것에 비하면 현실은 기대만큼 많은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다"면서 "어르신들의 복지예산과 농수축산 경영인들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이를 통해 잘사는, 행복한 함평을 만들어가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윤행 군의원은 군의회 의정경험을 내세우며 밑바닥 민심을 훑고 있다.

이 군의원은 "중앙정부 교부금 축소로 함평군 재정이 심각할 정도로 어렵다"면서 "중앙정부 교부금을 전남도에서 받아와야 하는 데 그동안의 의정경험과 함평군 예산을 파악하고 있는 내가 전남도와 함평군의 가교역할을 할 적임자"라며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했다.

전일정 천지 양계영농조합 대표는 20년의 농업 관련직 공무원 경험과 대한양계협회 이사 등을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도의원에 도전장을 던졌다.

전 대표는 "잘사는 농촌, 열심히 일하며 땀흘리는 사람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의원에 도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문호 동신대 겸임 교수는 전남 사이클연맹 부회장, 전남도 체육회 감사, (사)중소기업이업종교류연합회 등 체육계와 경제계 경력을 강점으로 민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그는 "전문성과 그동안의 인적 네트워크를 고향발전을 위해 발휘해보고 싶다"면서 "군민들과 함께 행복한 '함평의 꿈'을 이뤄가고 싶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황운학기자 hwang@

■함평 도의원 입지자

이 름	경 력
노종석(51·민)	전 천지농협 조합장
박동주(51·민)	민주당 전남도당 부대변인
이윤행(44·민)	함평군의회 의원
전일정(57·민)	천지양계영농조합 대표
정문호(45·민)	동신대 관광경영학과 겸임교수

■ 지방선거 핫코너

강운태 국회의원 '자서전' 출판회 가져

민주당 강운태 국회의원(광주 남구)이 28일 오후 광주 서구 염주체육관에서 자서전 '미완의 광주, 창조의 중심도시로!'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박주선 최고위원, 김동철·강기정·김재균·조영택·이용섭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민주당원과 지지자 1만여 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정재훈 동아병원장 내일 출판기념회

정재훈 동아병원장은 30일 오후 2시 광주공원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자신의 저서 '지방자치와 경영리더십'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정 원장은 그동안 혁신적인 병원 경영을 통해 조직경영의 원리와 기법을 몸소 체험하고, 9년간 석·박사 과정을 거치며 배운 지방자치 및 경영철학을 책에 담았다.

정 원장은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필요한 것은 자치행정이 아니고 자치 경영이며, 지방자치행정의 최종 목표는 주민들의 행복 추구"라며 "행정에 경영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비로소 지방자치 단체의 장기적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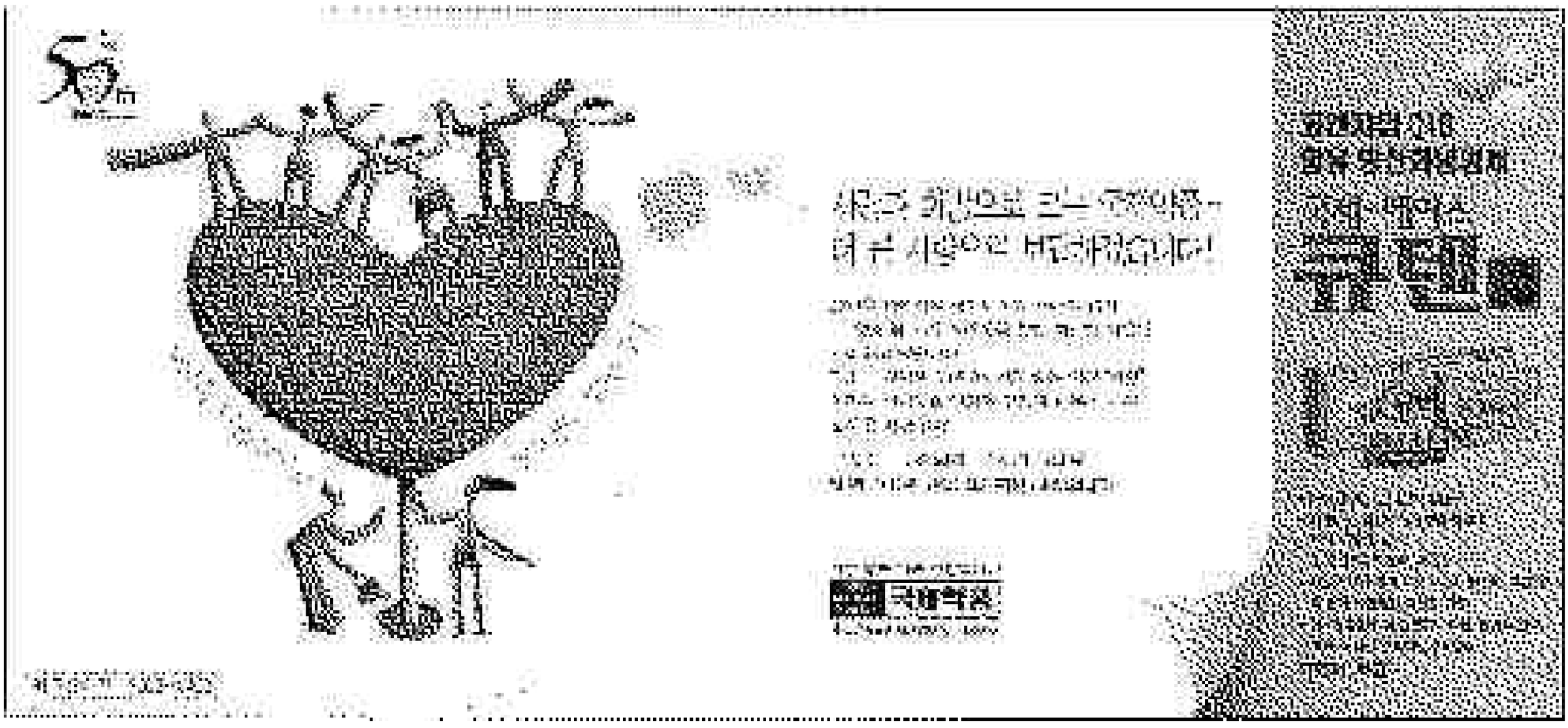
박인환 도의회의장 "구례군수 출마"

박인환 전남도의회 의장은 28일 전남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의회 의원과 도의회 의장, 전국시도의장협회 부회장 등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낙후와 퇴보의 길을 가고 있는 구례군의 번영과 명성을 되찾겠다"면서 구례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장은 "천혜의 관광지 구례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고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 마련된 각종 시설들은 개점휴업 상태이거나 투자의 손길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구례, 관광 1번지 구례를 만들어가는 데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원씨 내일 자서전 출판기념회

강진군수 출마를 준비중인 강진원(51) 민주당 강진부위원장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강진 동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자서전 '진짜 실력은 사랑입니다'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강 부위원장은 강진군 작천면 출생으로 제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공직에 입문해 전남도청 국장으로 재직 중 강진군수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사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